

Xangle

Xangle research

탈중앙 금융 생태계 지도 — DeFi가 세상을 바꾸는 11가지 방법

xangle.io

Powered by Xangle, the official disclosure platform.



탈중앙화 금융은 블록체인 기반과 분산형 거버넌스라는 두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입니다. DeFi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DeFi 군은 암호화폐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DeFi 제품군은 희소가치 있는 토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는 정확한 암호화폐 구매와 판매(교환) 기술을 추구하는 반면, 또 다른 제품들은 토큰화된 파생상품들을 찾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처럼 탈중앙 금융 세계에서의 활용사례는 다양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DeFi 는 2020년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는 DeFi 제품들의 실용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DeFi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탈중앙화’에 기반합니다. 만일 DeFi 업자들이 제공하는 제품이 새로운 것이 아닐지라도, 탈중앙화 프레임 워크에서 구축된 제품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DeFi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특히 금융사 업무 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서 더욱 용이함.
- 중앙집권 방식이 아닌,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참여자에 의한 더 큰 거버넌스를 촉진시킴.
- 기존 제품들보다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이 가이드에서는 DeFi가 기존의 금융 세계를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11가지 방법에 대한 예시를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 DeFi 활용 사례 종류 :

- **분산형 예측 시장**
(Decentralized Prediction Markets)
- **분산형 파생상품**
(Decentralized Derivatives)
- **분산형 자율조직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
- **분산형 대출(렌딩)**
(Decentralized Lending)
- **분산형 보험**
(Decentralized Insurance)
- **탈중앙화 거래소**
(Decentralized Exchanges)
- **분산형 자산운용**
(Decentralized Asset Management)
- **분산형 지급결제 시스템**
(Decentralized Payments)
- **토큰화**
(Decentralized Tokenization)
- **분산형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entity)
- **분산형 스테이블코인**
(Decentralized Stablecoins)

#1. 분산형 예측시장 (Decentralized Prediction Markets)

예측 시장은 단순한 전제로 작동합니다. 유저가 어떤 이벤트의 결과로 예상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맞으면 승리하고, 틀리면 패배합니다.

[Investopedia explains](#) 는 투자자들이 그동안 중앙집중식 예측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베팅해왔다고 소개합니다 :

- 증권 거래소 내 평균 시장 가격이 증가할지 하락할지
- 오일처럼 특정 상품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 누가 선거에서 이길것인지

이론적으로 예측 시장은 다양한 결과에 대한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베팅에 뛰어난 참여자는 계약을 맺고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순이익을 거둘지 손실을 입을지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분산형 예측 시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분산형 예측 시장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 특정 베팅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 다가오는 선거에서 후보 X가 승리하거나 2)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스마트컨트랙트는 1) 후보X가 이기거나 2) 유가가 상승하면 투자자에게 적절한 수익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래밍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에 비해 분산형 예측 시장이 가진 이점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 각 거래 효율성 향상
- 간접비 절감
- 수수료 절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형 예측 시장은 특정 자산의 미래를 베팅할 수 있는 접근성을 낮춰줍니다. 베팅 시, 기존 대형 금융기관이나 기존 시장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측시장을 보다 주류 현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베팅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시장 조작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킵니다.

최근 DeFi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부 분산형 예측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Augur](#)

Augur는 그들을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제한 없는 베팅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부터 시장 경제까지, Augur 플랫폼 사용자들은 말그대로 원하는 만큼 베팅할 수 있습니다. 베팅 가능한 범주는 믿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Gnosis](#)

Gnosis는 사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 예측 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즉 예측 시장 자체가 아니라, 예측 시장을 구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차체, 몸통으로 보면 됩니다. Omen은 Gnosis 프로토콜을 사용해 만든 예측 시장입니다.



[Polymarket](#)

Polymarket은 아직은 베타버전인,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글로벌 정보 시장 플랫폼”입니다. 유저가 참여할 수 있는 베팅 예시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중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승할 정당은?” 혹은 “Drake가 2020년 말 이전에 새로운 스튜디오 앨범을 낼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2. 분산형 파생상품 (Decentralized Derivatives)

파생상품은 전통 시장에서 투자(매수, 매도, 보유)를 넘어서는 금융 도구입니다. 즉 '투자의 파생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파생상품 관련 용어에는 옵션, 스왑, 풋, 숏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파생상품들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 복잡한 방식으로 자산의 미래 가치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생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금이나 석유 같은 상품
- 주식
- 시장 인덱스
- 채권
- 금리와 같은 시장에 인접한 도구
- 특정 통화지

투자자와 거래자는 특정 조건, 즉 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라 위에 열거된 유형의 자산을 매수, 매도, 교환하는 거래를 하면서 파생상품을 통해 돈을 벌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Investopedia explains](#)는 금융기관이 금리 상승이나 하락 가능성을 헷징하기 위해 금리스와프를 거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복잡한 금융 상품이기에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파생상품에 베팅 시 유리합니다.

탈중앙화 파생상품은 스왑, 옵션 등 중앙화 파생상품의 기본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로 이를 집행합니다. 즉, 투자자는 중앙화 파생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베팅할 수 있지만(다만 제공되는 파생상품은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음),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형식적인 절차를 밟거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시장은 파생상품 거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들이 대형 금융 기관에 그들의 거래 일부를 떼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탈중앙화는 파생상품의 자산군(ex. 암호화폐 영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DeFi에서 주목할만한 분산형 파생상품 시장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Synthetix

Synthetix는 분산형 파생상품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파생상품 유동성 프로토콜”입니다. SNX 토큰은 플랫폼 위에서 파생상품을 만들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SNX 토큰은 자산이 충분히 담보화가 되고, 플랫폼 내 베팅 지불능력이 충분한지를 보장해주는 데 사용됩니다.

Synthetix는 6억 9,900만 달러 이상(2020년 11월 5일 기준)을 보유한 최대 분산형 파생상품 애플리케이션입니다.



Hegic

Hegic은 사용자가 파생상품 거래자들에게 익숙한 기능인 “옵션 계약” 및 “콜 앤 풋 옵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 플랫폼은 유동성 채굴과 같은 분산 금융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delta Y / \delta X$

dYdX

dYdX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 자산을 위한 개방형 거래 플랫폼”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dYdX는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시장이며, 암호화폐 차입 및 대출(랜딩) 기능도 지원합니다.

#3. 분산형 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

분산형 자율조직은 어떤 특정 활용사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10가지 리스트에 열거된 다른 DeFi 종류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과 대출은 금융상품 활용 사례로 볼 수 있지만, DAO는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체계에 가깝습니다. 금융상품이 DAO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DAO 그 자체가 반드시 금융상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DAO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 분산형 거버넌스 (중앙 집중식 혹은 계층이 있는 거버넌스 모델이 아님)
- 조직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스마트컨트랙트에 의존

이 글을 보는 독자는 어쩌면 DAO를 특정 DeFi 프로젝트의 운영 체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DeFi 공간 내에서 특정 DAO는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재단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대출 플랫폼의 중추 역할
- 자산 관리 촉진
- 가상자산 거래소 호스팅
- 일드 파밍 허가
- ICO 활성화

DeFi 공간이 성장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그들의 발언이 실제 거버넌스에 반영되는 진정한 분산형 거버넌스에 이끌려 올수록, DAO를 기반으로 한 DeFi 제품은 많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DAO는 금융 외적인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즉 휴먼 리스크나 비도덕 등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조직을 위한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DeFi에서 주목할 DAO는 아래와 같습니다.



[Aragon](#)

Aragon은 분산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DAO 프로토콜입니다. Aragon은 기업 형태이건 다른 유형의 조직이건 현재까지 3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저장한 1,500개 이상의 DAO의 도약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AOstack](#)

유저는 DAOstack을 통해 Alchemy 인터페이스를 활용, DAO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DAO 구축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거버넌스에 제한한 바에 대해 민주적인 투표를 하게 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한 투표를 담보할 수 있으며, 분산화 거버넌스와 같은 DAO만의 강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MakerDAO](#)

MakerDAO 재단 자체는 다양한 수단으로 개발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개발 분산화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akerDAO는 MKR토큰을 보유하면서 플랫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버넌스 결정에 참여, Maker 프로토콜 및 Dai 스테이블코인 운영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구성합니다.

#4. 분산형 대출(랜딩) (Decentralized Lending)

대출은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익숙한 용어입니다. 대출은 한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미리 정해진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자' 형태로 제공되지만, 때에 따라 대출해주는 기관이 추가 혜택을 가지기도 합니다.

중앙화된 경제 생태계에서는 은행이 주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은행들은 개인이나 또 다른 금융 기관에 자금을 빌려줍니다.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즈니스를 개업하거나 채용자를 하거나, 보트와 같은 오락용 이동수단, 자동차와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서도 용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 대출도 대개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하지만 분산형 플랫폼에서의 대출에는 일반적으로 일부 암호화폐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분산형 대출 플랫폼의 주요 셀링포인트는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개인이 암호화폐(혹은 지원가능한 또 다른 자산 유형)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분산형 대출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기술로 구현 되고, 스마트컨트랙트는 대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프로그래밍됩니다. 이는 대출 구조에 대한 두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이끌어냅니다.

1. 대출을 해주려는 자가 대출을 해줄 자산이 있는지?
2. 대출을 받으려는 자가 대출에 필요한 담보가 있는지?

이 매우 간단한 대출 구조는 가까운 미래에 중앙화 금융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까지 신용을 확장하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에 자금을 보유하는 것부터 금리 지불, 기타 대출 조건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분산형 대출은 현재 금융 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eFi에서 주목할만한 분산형 대출 플랫폼들입니다.



[Aave](#)

Aave는 암호화폐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Aave는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ave에서 특정 토큰을 빌려주거나 빌리려할 때, 이자율이 서로 다른 것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mpound](#)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금리 프로토콜'인 Compound는 자체적으로 대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개발자들에게 기반을 제공합니다. Bain Capital, Coinbase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Compound는 최근 가장 유명한 DeFi 대출 프로토콜입니다.



[bZx](#)

bZx는 DeFi제품 지렛대와 회전력에 해당하는 기능을하는 대출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분산형 보험 (Decentralized Insurance)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어떤 형태로든지 가입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생명 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죠.

보험 수혜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보험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필요로 하는 금융 상품이 됩니다. 허리케인이 강타를 했다든지, 토네이도가 지역을 황폐하게 할 때 보험은 재정적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이 되죠.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소득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투자 및 저축을 포함에 모든 것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해킹으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분산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동시에 보험에 대한 시장도 같이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보험을 반드시 들어놓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DeFi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및 다른 자산군에 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그냥 두고 볼 투자자가 있을까요?

DeFi 보험의 강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월간 또는 연간으로 보험료를 내면서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거래 트랜잭션
- 투자 포트폴리오
- 전체 DeFi 플랫폼

일부 분산화 보험 애플리케이션들은 비행기 티켓에 대한 보험,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등 크립토 자산이 아닌 것들까지 포함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DeFi의 분산형 보험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Oryn](#)

Oryn은 Compound 프로토콜로 이더리움이나 예금을 보장하려는 유저들을 위한 위험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들이 커버하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oToken으로 헷징을 할 수 있습니다.



[Nexus Mutual](#)

Nexus Mutual은 DAO해킹 사태나 Parity 다중서명 지갑의 도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들이 스마트컨트랙트 코드의 버그 위험을 공유하고 줄이면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Etherisc](#)

Etherisc의 목표는 보험 별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분산형 보험 프로토콜을 제공해 ‘보험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therisc는 크립토 지갑 보험에서부터 비행 지연에 관한 보험, 허리케인 관련 보험에 이르기까지 틈새 시장에 맞게 재단된 다양한 분산형 보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6. 탈중앙화 거래소 (Decentralized Exchanges)

탈중앙화 거래소 또는 DEX는 모든 자산 거래소들의 기본 구조를 취하면서 여기에 블록체인을 배치합니다.

일부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도, 중앙 집중식 혹은 사람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유지합니다. 중앙 이사회는 운영 결정권을 가지면서 거래자들의 투자를 핸들링할 수도 있고, 트랜잭션 감소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탈중앙화의 진정한 이상향을 목표로 합니다. 즉, 거래소에 필요한 투자자금과 추진력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합니다. 이 때 거래는 사람에 의해 감독되지 않고 알고리즘에 의해 최대 퍼포먼스를 내도록 하고, 거래소 참여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플랫폼 관리 방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몇 가지 이론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일부 인력으로 운영하는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로 운영되지 않고, 의사 결정과 현장 실무가 거래소나 스마트컨트랙트 참여자들에게 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진정한 민주 거버넌스
- 트랜잭션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기계적이며 확장성 있는 시스템
- 이론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안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적은 리워드가 돌아감

접근성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이사회와 같은 중앙 권력을 없애는 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는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은 시장에까지 커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최근 DeFi에서 가장 눈에 띄는 탈중앙화 거래소들입니다.



Uniswap (v2)

Uniswap은 모든 탈중앙화 거래소들 중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Uniswap을 통해 거래되는 자산은 3억 1,900만 달러 이상입니다.](#) Uniswap 사용자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토큰을 거래할 수 있고, 거래소에 유동성을 제공해 토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Curve

Curve는 투자자가 보유 토큰을 거래소에 빌려주고 이자를 얻는 일드파밍(yield farming)에 특화돼 있습니다. [Curve는 2020년에 수억 달러의 성장을 보였고,](#) 분산형 교환 환경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Tokenlon

Tokenlon은 분산형 거래소 투자 시장 점유율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DEX들 중 세번째입니다. 이 거래소의 강점은 Tokenlon을 지원하는 Ox 프로토콜이 선매매 거래나 예상되는 거래 주문 조작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7. 분산형 자산운용 (Decentralized Asset Management)

자산운용은 투자자를 대신해 자산을 관리 감독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재정 고문, 자금 관리자, 투자은행, 때에 따라 “내 사람”으로 지칭되기도 하죠.

중앙 집중식 자산운용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나 여러 자산 유형을 스스로 관리하죠. 하지만 전문 집단이 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에는 금전적인 전문성 외에도 비금전적인 혜택도 따릅니다. 예를 들어 JP 모건 같은 대형 금융사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 채권, 머니마켓 펀드 및 인덱스 펀드와 같은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다른 자산운용사에 비해 너무 많은 위험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고객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 수익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소득도 차감
- 자산관리자 개별 도덕윤리
- 회사 내외부 규정 준수

외부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때 위탁자는 이 비용이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지불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분산형 자산운용은 이 같은 전통적인 자산운용 서비스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DeFi 자산운용 서비스는 주로 암호화폐 투자를 다루고 있지만, 향후 필연적으로 전통 자산군으로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분산형 자산운용 플랫폼에서는 자산관리자의 모든 행위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돼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스마트컨TRACT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자동으로 보내거나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자산운용 기간이 끝나면 고객 자금 인출을 위해 알고리즘으로 펀드를 자동 해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산형 자산운용의 이점으로는 투명성 향상, 안정적인 프로세스 자동화, 지울 수 없는 불변의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고객과 자산운용사간 재정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횡령 등의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DeFi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분산형 자산운용 프로젝트들입니다.



[DeFi Saver](#)

DeFi Saver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포지션을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에 따라 DeFi Saver는 투자자를 대신해 암호화폐 자산을 자동으로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합니다. 이로써 큰 손실을 보거나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Gnosis Safe](#)

Gnosis Safe는 개인 및 투자기관 모두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산형 자산운용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트랜잭션 처리 시 필요한 서명과 같은 설정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 처분뿐 아니라 급여나 인보이스 송부처럼 비즈니스 관련 작업도 가능합니다.



[TokenSets](#)

TokenSets를 통해 사용자는 미리 정한 자동화된 전략에 따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장 상황이 변할 때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서 재조정하는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양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TokenSets는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고 여러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8. 분산형 지급결제 시스템 (Decentralized Payments)

지불/결제는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집세를 내야 하거나, 사탕을 사고 싶거나, 직원들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려고 할 때, 이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먼저 중앙집중식 지급결제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집중 방식으로 결제한다는 것은 결국 중앙 집중형 금융기관, 일반적으로는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표를 작성하든, 온라인 송금을 하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중앙 집중형으로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연결된 결제 수단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분산형 결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분산형 결제로 지불할 때의 핵심 아이디어는 중개인을 없앤다는 겁니다. 현금 결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분산형 결제의 원래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현금이 없는 상태를 가정해보면, 또 다른 형태의 분산형 지불결제가 현금보다 수명이 더 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란, 분산된 거버넌스에 의해 운영되는 분산 결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드 네트워크들이 단일 금융 기관 대신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속도'가 분산형 결제의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결제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려면 중앙집중형이 아닌 전체 노드 네트워크에 침입해야 하기 때문에 손상 가능성이 적습니다.
-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및 기관들이 위치한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 지불/결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많은 DeFi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분산형 결제 시스템의 목표중 하나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현재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분산형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때 필요한 단 한가지는 '핸드폰'입니다.



DeFi 결제 상품들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hisp](#)

Whisp는 암호화폐로 급여를 주려는 사람들을 위한 분산형 결제 플랫폼입니다. 지불 기록은 Whip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다소 틈새 시장이지만, 급여 지급은 분산화 결제 시장에서 독특한 활용 사례 중 하나입니다.



[Matic](#)

Matic은 이더리움 단독 대신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Matic만의 사이드체인을 결합한 위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해 결제 속도를 높였습니다. 탈중앙화의 원리는 지키면서 더 빠르게 지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Request](#)

Request는 인보이스 발행, 관리,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암호화폐 결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플랫폼은 모든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기준에 맞게 인보이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토큰화 (Decentralized Tokenization)

토큰화라는 용어는 블록체인 기술과 동의어입니다. “어떤 것을 토큰화한다”는 피카소 조각이든, 젤리 도넛이든 상관없이 자산을 직접 나타내는 토큰을 블록체인과 연결해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로이트](#)는 “토큰화는 다양한 면에서 전통적인 증권화 방식과 유사하며, 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권화와 마찬가지로 토큰화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구매, 판매,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피카소 그림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산은 크기도 너무 크고 망가지기도 쉽습니다. 도난이나 손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높은 가치의 자산입니다. 그림이라는 자산을 토큰화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 토큰화 과정에서 정품임을 확인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품 여부를 검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토큰 배분율만큼 그림 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그림 소유권 지분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쉽게 이전할 수 있어 좀 더 현실적인 투자 수단이 됩니다.
- 소유권 이전 기록을 블록체인 원장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구매가 용이해지면 향후 자산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점은 토큰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자산군에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다음은 DeFi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토큰화 프로젝트들입니다.

POLYMATH [Polymath](#)

유저는 Polymath를 사용해 디지털 증권을 생성, 발행,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자산을 표시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받은 다음, Polymath 사용자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토큰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 KYC 및 법률 자문 서비스 같은 증권형 토큰 인접 서비스 또한 제공합니다.



[Securitize](#)

자산관리자는 Securitize를 사용해 증권을 토큰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유동화 공개, 벤처 및 사모펀드, 직접 거래, 단일 자산군 투자, 비유동 자산 공개 등 매우 다양한 투자처를 매니징하려는 투자자들에게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okensoft](#)

Tokensoft는 토큰화된 증권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라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큰화한 자산의 특성이 무엇이든지간에 SEC (美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정 준수를 염두에 두면서 자금조달 및 관리를 자동화합니다.

#10. 분산형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entity)

DAO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은 현재는 DeFi 분야에서만 통용되고 있지만, 향후 DeFi를 넘어서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 모두는 광범위한 디지털 신원을 이미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한 제품들, 넷플릭스에서 본 비디오, Zoom이나 Slack을 통한 대화, 우리가 가는 장소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행위든 대부분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메타 데이터는 디지털신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신원은 누가 소유하는 걸까요?

법적으로는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플랫폼들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신원 정보를 이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자신들의 데이터인데도 소유권이 아예 없거나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들은 석유보다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죠.

분산형 신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과정에서 분산형 신원은 고정된 방식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안전한 개인 키 보호 장치에 개인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노드들이 분산화돼 퍼져있기 때문에, 강한 보안성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 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한 진입 통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개인 키를 안전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모든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생체 인식과 블록체인을 결합해 보안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 신원 보안은 블록체인 뿐 아니라 지문 (또는 이식된 RFID칩과 같은 다른 수단)으로도 보완될 수 있습니다.

Microsoft와 같은 대형사가 분산형 신원증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우려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산형 신원증명의 이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단일 위치에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아이라니하게도) 중앙 집중화
-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는 자에 대한 투명성 향상
-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 개인 정보 사용 방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받는 대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 가능함

다음은 DeFi 공간에서의 대표적인 분산화 신원증명 프로젝트들입니다 :



Civic

Civic은 암호화폐 지갑 ID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더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을 한번만 확인하면 되고, Civic 플랫폼은 재확인없이 암호화폐를 반복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Bloom

Bloom의 셀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이 플랫폼에 전화번호, 이메일, 신원 확인 문서 및 신원 확인에 도움될 수 있는 특정 식별 서식 같은 개인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Bloom 플랫폼은 기업, 개인 소비자, 개발자들에게 제공됩니다.



uPort

uPort는 기업과 개인이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안전한 데이터의 교환은 분산형 신원관리 플랫폼들의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11. 분산형 스테이블코인 (Decentralized Stablecoins)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가 유용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적다”고 하는 비평가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사례입니다. [Investopedi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예비 자산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은 없습니다. 금조차도 가격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동전주나 석유보다는 훨씬 변동성이 적죠. 스테이블코인의 아이디어는 블록체인 기술에 묶여 분산화된 자산군을 만들어내지만, 보다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 스테이블코인들을 통화, 금, 석유와 같은 자산에 연결시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정적 가치를 지닌 코인은 예측 가능한 투자 수단일 뿐 아니라, 교환 매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예비 자산들에도 정의된 수량이 있습니다. 금본위제 하에서 미국 달러가 그랬듯이, 예비 자산을 고정된 금액만큼으로 묶어두는 것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예비자산으로 일반 경제 생태계 주류 자산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자산과 연결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도 토큰화의 이점(블록체인 보안, 분산형 금융 체제로의 거대 이동)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DeFi에서 주목할만한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Dai](#)

Dai는 MakerDAO에 연결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Dai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더리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지갑 간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Dai는 MakerDAO 플랫폼에서 대출이 만들어질 때마다 함께 생성됩니다.



[Tether](#)

테더는 스테이블코인들 중 시총이 가장 큼니다. (약 170억 달러) 이는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으로 봐도 엄청난 점유율이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언급할 때 테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USD Coin](#)

USD Coin(USDC)은 Circle의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승인된 스테이블코인 중 하나인 USDC는 지난 몇 달 동안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About Xangle



쟁글은 글로벌 가상자산 공시데이터 플랫폼으로, 선구적인 글로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쟁글은 온체인 데이터를 큐레이션하고 프로젝트들의 오프체인 공시를 지원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가상자산의 입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Disclaimer: 본 보고서에 사용된 모든 정보의 출처는 크립토 공시 플랫폼인 Xangle입니다. Xangle의 모든 정보는 대상 기관 또는 Xangle Research Team 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았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